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62호_발행일 : 2003년 12월 14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3년 교회표어: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_02-416-5181_www.pcltv.org

기사제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즐함을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목요기도회를 통한 담임 목사의 성탄 메시지)

Love never fails! (실패가 없는 사랑)

날씨가 많이 쌀쌀했던 목요일 저녁 7시. 중예배실에서는 30-40대 직장인과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11월 6일 첫 모임을 예수전도단과 함께 협력사역으로 시작한 목요기도회. 참석해본 사람들은 피부로 실감하지만 시간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침을 강하게 느껴지는 예배로 이제 자리 잡았다. 교회 바깥은 비록 쌀쌀한 날씨였지만 그곳에 모여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은 성령의 임재로 뜨거웠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지만 찬양과 경배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 기쁨으로 인사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매주 목요일마다 갖고 있다. 이날 설교말씀은 문동학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다. 성경 본문은 눅 15:8-10이었고, 제목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여인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었다. 이날 설교를 발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눅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이 3가지 등장한다. 양,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목자나 아버지로 친근하게 비유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여인으로서는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결혼한 여인이 결혼 지참금 이외에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개인 소유물이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는 친정아버지와 가족들의 사랑이 담겨 있고, 자신이 비상시에 자신을 구원할 구원의 도구와 수단이다. 그런데 고대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상 서민의 가정은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바닥의 틈이 깊어 한번 바닥에 무엇이 떨어지면 찾기 힘든 구조였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

는 수치감을 느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담임목사는 경기불황과 정치 및 사회의 불안함으로 인해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30-40대 직장인들과 청년 및 장년들을 향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 중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수치심을 느끼시며 계속 찾으시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끈질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강조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을 만드시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하는 사랑이다. 눅 15장 9절을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마침내 찾은 다음에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온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잊지 않는 사랑이고, 위기나 고난 때 더 안타까워하시며 계속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녀를 낳고 업고 품고 기르시는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을 기다리며 묵상해야 될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설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함께 느끼며 말씀 이후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손길을 느끼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모자원에서 날아온 편지)

신광모자원, 그 행복의 날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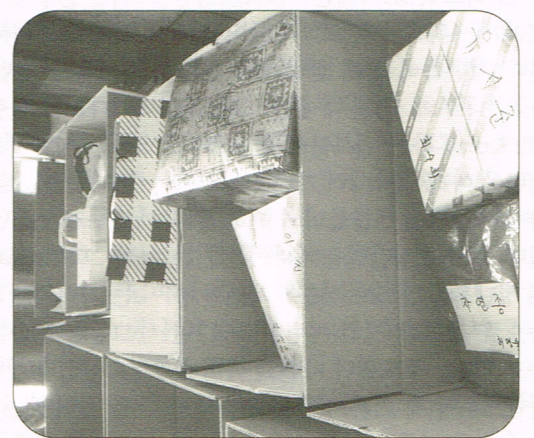
주님의교회 문동학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기쁨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넉넉하신 분이심을 이번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과 좁은 시야를 가지고 늘 한계를 느끼며 살아왔는데, 이번에 모자원에서 주님의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너무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해바라기의 노래 가사처럼, 이 일로 너무나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지는 바로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훈훈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 이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하는 그럼 마음을. 이런 걸 바로 행복한 고민 내지는 즐거운 비명이라고 하겠지요.

박민정 할머니 (딸 정명희) 성도님이 11월 30일에 자원봉사 연결팀으로 오셔서 모자원 가정의 목욕비를 위해 후원금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니 200만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또 12월 7일에는 무명의 성도님이 목욕비를 위해 후원금 100만원을 주셨습니다. 함께 300만원을 목욕비로만 쓰기에 너무 과한것 같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원 가정의 목욕비용(목욕탕 이용권과 찜질방 이용권)으로 150만원을 사용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특별히 어려운 모자가정에 10만원씩 후원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모자원에 차량이 없어서 차량구입비로 일부 모아두자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목욕비로 지정현금을 주신터라 그렇게 사용해도 될지 고민중입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자원봉사 연결팀의 수고와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저희 모자원이 새 힘을 얻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크고 넓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 미숙H 집사 <http://www.mojawon.com>



(세례입교식: 신앙고백)

일어나 걸어가는 신앙인 되길

저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만 의지하고 살게 되었고 간호사 생활을 할 때는 교회에 빠지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젊은 부부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주일만 겨우 지키는 어린이가 같은 신앙으로 원점으로 되돌아온 후에야 하나님은 오랜 기도와 간구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잊고 살아온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바른 신앙고백을 하고 더 이상은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가고 자라가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선미B 집사

(세례입교식: 신앙고백)

내 인생의 참 주인 은 예수님 바로 당 신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의대를 가겠노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내과의사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 아내와 만나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세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마음대로의 방식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다니고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지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은혜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고작 가끔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듣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는 내 방식대로 생활하였습니다. 내가 집안의 가장이었고, 직장의 주인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주인 노릇을 하였고, 직장에서는 내가 주인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의사가 되었고, 환자에게는 위에서 항상 명령하며 따르기를,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환자 진료에는 열중

했습니다. 환자가 많이 오는 날이면 힘들어서 불평하고, 환자가 적게 오는 날이면 한가하여 불평했습니다.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어느 날 취미로 악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같이 배우는 동료가 이왕이면 QT도 하고 악기연습도 하자고 해서 우연히 QT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였지만 그냥 밋밋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면 화도 나고, 남에게 독설도 뽐으며, 이 세상의 이

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별레만도 못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다니... 한참동안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치가 뚜렷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라디오를 통해서 건 인터넷을 통해서건 매일 매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가슴 벅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된 것이 없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내안의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직장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서 환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환자 돌보는 일이 너무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더욱 더 감사히 일하였습니다. 짜증 한 번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환자가 늦게 오면 예전 같으면 짜증을 내고 불평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는 저에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하면서 웃으면서 환자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로 ‘환자들이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하고 형제, 가족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대화하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항상 겸손하신 나의 주인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임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며, 믿음의 자녀로서 자랑스런 승리자가 되도록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최석주 성도



(우리교회 성탄트리)

세상을 향해 뻗어있는 성탄트리

우리교회 로비에는 커다란 성탄트리가 세워져있다.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성탄목이 눈에 금방 들어온다. 높은 나무에 가운데에는 “Merry Christmas”라는 인사말이 눈에 띄고 성탄목 아래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식된 갖가지 선물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이처럼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에 성탄목을 만드는 것을 세계적인 풍습으로 보편화 시킨 사람은 1517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이다. 가난으로 인해 기쁜 성탄을 우울하게 보내야 할 가족들을 생각하며 성탄트

리를 손수 만들어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게 해준데서 유래했다.

올해 성탄절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먼저 가정을 생각하는 성탄이 되길 바란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 서로 마음을 깊이 나누지 못했던 가족들.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동안 무슨 말을 하고 싶었고 또 듣고 싶었던 것일까 함께 나눠보며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올해 성탄절은 교회 다니지 않

은 사람들을 향해 뻗어있는 성탄트리를 집집마다 세우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사회와 세상의 소외당하고 외로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아름답고 따뜻한 기운이 넘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8일 첫눈 오는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 속에 되새겨 보았다.





(부서 소개: 드라마팀)

12월 17일

‘예수의 탄생’이 한 주 먼저 시작된다

주님의교회 드라마팀은 위원장인 최창섭 장로, 부장 이상경권사, 팀장 손경숙집사, 우일강권사, 이 건호 집사, 정규은 집사, 박미령 집사, 김영 집사, 송 경혜 집사, 안혜정 집사, 이주연 집사, 정선일 집사, 조성곤 집사, 조현정, 이희순 집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두 편의 작품 ‘어느 버스기사의 이야기’와 ‘완악씨의 삶과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연을 해왔다. 2003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12월 17일(수)에 ‘예수의 탄생’ 3번째 작품으로 성도들에게 새롭게 찾아간다. 공연연습은 매주 화, 목 저녁 7 시에서 밤 10시까지 전원이 출석한다고. 화요일 연습 전에 찾아갔을 때 큰 술에 푸짐한 감자탕이 끓고 있었다. 훈훈한 열정이 살아있는 드라마팀 전원과 인터뷰를 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공연할 드라마 작품선정 이유와 짝막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탄생을 재조명하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극화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 온 분도 예수의 탄생의 임재를 쉽게 알게 해줄

것입니다. 또 재미를 가미시켰지요. Original 전통연극인데 광림교회와 SBS 드라마팀이 제작한 것으로 정선희 집사님이 가져다 주셔서 대본을 알게 되었어요.

준비하면서 발생한 에피소드나 즐거웠던 점, 나누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세요

강릉교회에 공연을 가는 차 안에서 찬양을 계속 불렀서 은혜가 넘쳤어요. 차안이 노래방이 되었고 오징어상품까지 준비해 시상도 했지요. 은혜로웠던 기억은 병원에 링거를 맞는 환자들이 공연을 보고 울었어요. 그때 우리들도 다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춘천훈련소 불물의 부대에서 새까만 아들 같은 훈련병들에게 빵과 사이다를 나눠주고 창피한 줄 모르고 공연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잘한다고 ‘천국문’도 똑딱 만들어 주었지요.

크리스마스 드라마를 통해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길 바라나요? 드라마팀을 위해 성도들에게 바라는 점 말씀해 주세요

대강절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가장 위대하신 분을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기대를 하고 연극을 기대하며 기도로 후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동작을 통해 더욱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국내외 선교계획이 있는데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참여를 원해요. 특히 드라마팀에 남성과 청년들의 참여가 거의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 드라마를 통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요

드라마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신앙을 재조명하여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드라마팀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원래 드라마팀의 목표는 한달에 한 번 선교였으나 저마다 바쁜 일로 1년에 3~4회 선교공연을 해왔습니다. 강석영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신 남서울 주님의교회에도 크리스마스가 낀 주일에 공연을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극으로 선교하는, 사랑으로 뭉친 형제들로 보아주세요.

드라마팀에서 활동하고 싶지만 ‘나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소개해주세요

우리 전부 다 순수 아마추어입니다. 경력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할 뿐입니다. 임동진 장로님 극단에 있는 정선일 집사님의 연기지도를 받으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극에 전념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위에서 떠밀어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진해서 전화한 사람들입니다. 의욕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팀의 남자성도들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장점이나 복음에 있어서 독특성을 말씀해주세요

먼저 연극은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1:1 전도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선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언어의 장벽의 한계가 없다는 점, 또 추상적인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드라마팀을 구성하게 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무대 의상등을 손수 장만하며 준비하는 모습, 식사를 하면서도 대본토의가 끊이지 않는 모습, 서로에게 격려하며 장점을 찾아내려는 모습 등 초대교회의 생동감을 떠오르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할까? 12월 17일(수) 오후 8시 중예 배실에서 공연될 ‘예수의 탄생’을 기도하며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5교구 10구역 구역소개)

가족모임같은 구역모임

조용한 ‘난타’ 공연 소리를 듣는 기분이었다. 오늘(11월 28일)은 교구 담당인 윤덕영 목사와 함께 구역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아내는 너무 즐거운지 연상 양념을 다지고 반찬을 준비하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짓느라 바쁘기만 하다. 나에게서는 이것저것 잔심부름과 교자상을 닦아 놓는 일을 시키고 이내 슈퍼마켓에 가서 음료수와 마스크 멜론을 사오라고 호령이다. 나 역시 이런 심부름쯤이야 행복하고 즐거울 따름이다.

층계를 그냥 뛰어 올라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노라니 권철 김진에 집사가 도착했다. 손에는 무얼 그리 주렁주렁 들고 오시는지 짐이 많다. 펼쳐 놓고 보니

숨쉬부린 더덕회, 새송이구이, 식혜 등이 벌써 입맛을 돋운다. 이내 서길원 집사와 고초순 권사 내외가 도착하고 불고기 한 양푼이 식탁 가운데를 장식한다. 조금 있으니 이재철, 안상교 집사 내외가 정성껏 불인 전을 한 소쿠리 들고 왔다. 모두들 무척 행복한 표정들이다. 이재철 집사가 현대건설 리비아 가스 설비 공사를 하다가 오랜만에 휴가차 함께 참석해서 구역예배를 드리게 되어 안상교 집사의 행복한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상기되어 있었다.

윤덕영 목사도 환한 얼굴을 지으며 도착하고 이어 정숙자 집사가 탕수육을 해 가지고 오고 최경희 집사의 굴 생채보쌈, 김혜원 집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또 구역장 하태원 집사가 잘 구어진 파이를 가져왔다. 뷔페 식단으로 차린 음식을 각자 접시에 담아 군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윤덕영 목사의 식사 기도가 우리들의 심금을 울렸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아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고 교만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이어 식사가 계속되고 구역 공부가 시작되었다. 오늘 성경공부는 제10과 ‘인생의 파도를 넘어’ (창세기 39장 1~23절)로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라는 것이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역원들의 각자 자기 삶의 경험치 쏟아져 나왔고 대화가 한 참 무르익을 때 우리 구

역 마라톤의 제일인자 박종혁 집사(3시간 39분, 울트라 마라톤 11시간 56분)가 왔고 조금 있다가 주광남 집사가 야근을 일찍 끝내고 가은이의 환대를 받으며 들어왔다. 가은이는 구역예배 때마다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는 귀염둥이다. 특히 오늘은 가은이가 시무룩해 있었는데 남자친구 윤희가 만나왔기 때문인지 모른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열띤 토론과 이야기로 두어 시간이 경과되었다. 오랜만에 18명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드리는 예배와 성경공부였다. 목사님과 함께 드리는 구역예배는 너무도 한참만인 것 같다.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 이 얼마나 더 좋은가! 10시가 거의 넘어서 구역모임은 끝이 났다.

정해춘 안수집사

{교회소식}

1. 성탄행사 및 송구영신 예배

성탄축하 음악회가 12월 24일(수) 오후 8시에 시온과 샬롬 연합 찬양대 주관으로 대예배실에서 헨델의 메시아 곡 발표회가 있고, 성탄 축하 연합예배가 1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있으며,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수) 오후 11시 30분부터 드려지며, 1월 1일 신년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2. 청년부 혼성 중창단 성탄축하 발표회

12월 21일(주일) 1시 30분 4부 예배에 청년부 혼성 중창단의 성탄축하 발표회와 워십댄스팀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3. 도서실(5층) 개방

도서실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성숙에 도움이 될 신앙서적 및 일반서적을 계속 기증받고 있으며, 추천해주시는 도서는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월요일은 휴관)은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자원봉사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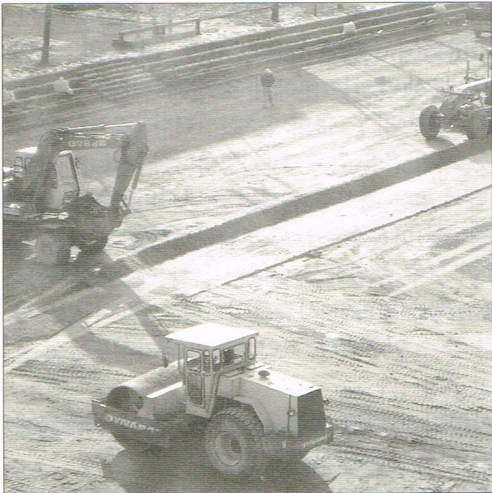
교회내에서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2월21일,28일(주일)에 1층로비에서 자원봉사 박람회를 갖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봉사연결팀에게 문의바랍니다.

5. 2004년 교회학교 교사 지원

2004년 교회학교를 함께 섬기고 봉사할 의욕적인 예비 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학교 부서에 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교회의 다음세대를 준비하며 키우는 일에 동참합시다.

6. 목요모임 안내

매주 목요일 7시에 중예배실에서 목요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5일(목)에는 목요모임을 쉽니다. 그리고 1월 1일(목)은 2004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 드립니다. 많은 30-40대 직장인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의 참여 기대합니다.



학교 운동장 8일간 정지공사

중 예배실(중강당) 공사와 매주 주일날 자동차 주차로 인해 엉망이 된 운동장 정지 공사가 강산건설에 의해 12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운동장 정지 공사는 ① 운동장 외곽 측구 트렌치 준설 작업 ② 기존 테니스코트 바닥 철거 반출 및 정지공사 ③ 건축 폐기물 수거 반출 작업 ④ 기존 운동장 지면을 평균 10cm 절취 반출하고 새로운 마사토를 10cm 포설 다짐하는 작업 등이 실시된다.

8일간의 짧은 공사 기간과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사

고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배수 및 배수로에 흙이 유입되지 않고 막히지 않게 해야 하며 건축 폐기물은 완전히 수거 반출하고 배수지주는 기존의 자리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이번 공사로 오염되고 파괴된 운동장 흙을 말끔히 120대 분량정도 파내고 새로운 마사토 120대 차량분을 반입하여 수습하기 편리하고 뛰놀기 좋은 양질의 운동장으로 탈바꿈하는데 총 공사비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공사라고 한다. 이 공사는 17일(수)에 끝날 예정이다.



(교회 시설소개: 도서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5층에는 도서실이 있다. 그곳에는 성도들이 기증한 것과 교회에서 구입한 각종 서적이 3,000여권 넘게 비치되어 있으며 30여 좌석이 동시에 독서할 수 있도록 안락하게 구비되어 있다. 주요 서적은 성도들의 신앙성숙에 도움이 될만한 각종 유익한 신앙 서적 및 일반 서적을 비치하고 있으며 성도들로부터 계속 기증을 받고 있고, 도서실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추천해주는 도서는 계속적으로 구입

하여 비치하고 있다. 주일에 예배 전후로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좋은 신앙서적과 함께하며 휴식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용 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월요일은 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서 소개: 청년부 정기총회)

하나님 뜻 이뤄지는 청년부되길

2003년 청년부 정기총회가 11월 23일 4부예배 후 1층 제3집회실과 소예배실에서 있었다. 이번 총회는 내년도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와 투표를 위한 시간임과 동시에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의 비전을 세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청년1부는 청년들의 추천, 제청과 동의의 과정을 통해 후보들이 뽑혔는데, 후보들은 누가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겸허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청년부의 성장과 역동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청년2부 임원 선거방식은 차기 회장인 권혁준 형제의 사회를 비롯해 청년부 내 선거위원 5명의 진행

으로 무기명 투표로 임원후보 추천과 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총회의 결과로 결정된 2004년 청년부 회장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이동근(1부), 안 준(2부),
총무-박준형(1부), 김기범(2부)
회계-정지원(1부), 송영주(2부)
서기-이성주(1부), 박정애(2부)
이들을 통해 2004년 하나님께서 청년부에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

(유소년 축구 클럽)

제1기로 118명 수료하여

지난 3월 9일부터 시작한 주님의 교회 유소년 축구클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어 모든 훈련을 마치고 지난 11월 30일부로 제1기 수료생 118명을 배출하였다.

문동학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교회의 역점 사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유소년을 위한 축구 클럽이 태동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KBS 명 축구 해설가 이용수 집사와 총무 김태원 집사의 노고와 전문코치 2명과 4명의 세종대 이용수 집사의 제자들의 헌신적 봉사가 흠뻑 땀으로 매주일 젖어 있었다.

주일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연습이 시작되어 3시가 넘어 끝이 났고, 미

사리 잔디구장으로의 전지훈련과 자체 평가 게임으로 실력 향상을 도모하여 모두 기본기가 충실해지고 단체 생활과 협동정신을 함양하게 되었다.

제1기 수료생은 초등학교 102명, 중학교 14명, 외부학생 2명으로 총 118명이다. 수료생 대표로는 4학년 최지예와 1학년 박상민이 상을 받았으며 개근생도 7명이나 되었고, 여학생도 20명이나 참가하였다.

제2기 유소년 축구 클럽은 2004년 3월 7일부터 시작하여 6월 27일로 마감하며 16주 훈련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